



취미의학 ②

# 성도착증 이야기

동 성 애

鄭 東 哲

우리말에 「바꾸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은 것같지 않다. 울며 웃는 묘한 감정을 말할 때 「바꾸리에 떡싸준다」는 말에서 연유된 「바꾸리」는 동성애의 속어였다. 어른이 되려면 성인식(成人式)의 하나로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역이었는데 선임자에게 「호모」로 대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던 어머니는 떡을 싸주면서 마음아파했던 것이다.

동성애는 물론 이성에 갖어야 할 관심이나 동성으로 끌려 성적 만족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마치 부부와 같은 행세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성별이 어떤 것이건 관계없이 남성의 역할을 하는 능동형이 있으며 여자의 역할을 해내는 피동형이 있는가 하면 수시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혼합형도 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동성애로 한평생을 보내는 현저한 모양이 있으며 처자를 거느리면서 음성적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다. 이때 이들이 즐겨 택하는 쾌락의 방법은 일정한 것이 아니며 무척 다양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추잡하여 여기 일일히 그 내용을 소개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 × ×

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성애 남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본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뭇인들 마다 하겠읍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아늑하고 포근하고 따스하고, 도시 그 틀속에 있으면 이게 천국이라 생각되곤 합니다

여자는 더럽지요. 추잡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분은 너무 깨끗한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오히려 듣는이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킬 만큼 어떤 사연의 사랑도 이를 따를 수 없을 지경이었다.

×                    ×                    ×

물론 이들에게 얼씨안은 것으로 즐거움이 끊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성적 쾌감을 서로 만족하게 갖는데, 여기 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성기(性器)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닐 때가 얼마든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도착증의 하나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 동성애라는 병명이 미국의 정신병 분류란에서는 빠져 버렸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실상 이들 동성애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법을 어기거나, 일의 능률을 올리지 못하거나, 지능이 잘못 되어 할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천연스러울 뿐이다. 따라서 다만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마음의 안정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고 주장하게 된 것이 그 연유인 것 같다. 한때 한방에 두 녀석이 문을 닫고만 있어도 「호모」라고 하여 백안시하던 그들 미국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뭔가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한국에서 동성애가 문제시 되는 것은 대단치 않은 것이라 보여진다. 가령 원

두막에서 수막 참의 제트리어 사냥녀석들이 짝갈때며 허우직 거리는 「호모」나 어떤 연예인이 또는 정치인이 이상한 복장에 설사 동성애를 즐기고 있다치더라도 그것은 애기거리에 그칠뿐 법적으로 취급되어 도외시 되지는 않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찬양할 일이야 없겠지만 질점을 하는 법석까지는 일으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다. 이것은 사회가 부여하는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하게 성장되어 성의 혼란이 적은 탓이라 여겨진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인이 여러갈래로 설명되고 있다. 유전 때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내분비(호르몬)의 이상 때문이라고도 한다. 가령 남자에게 당연히 많아야할 남성호르몬보다 여성호르몬이 많으면 동성애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신빙성 있고 중요한 것은 환경적 요인과 성장과정의 부모의 역할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딸은 어머니를 닮아야 하는데 닮아야 할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족하거나 미숙하고 병적일 때 그들은 닮을 수 없는 자식은 장차 자기의 성격(성별에 따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혼돈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따라서 경제적으로 운택하게 한다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성도착증에까지 크게 작용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되리라 생각된다.

〈필자=경희의대 외래교수·

정신과전문의·의박〉